

놀이노래 가사의 실태와 가사의 전통성 조사

Survey Analysis of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Play—Songs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words of the songs in children's games in order to determine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ir rhythm and subject matter, and to investigate age and sex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the songs. 71 play songs were used for content analysis. After this, 840 subjects in 15 grades (preschool, first to 12th grades, and college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the songs.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one-way ANOVA and Scheffe.

The songs exhibited traditional rhythms (3.3 or 4.4) and subject matter (nature, everyday life, and family). Some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and current phenomena such as TV, were also included. Sex but not age differences were found in recognition of the songs.

I. 문제 제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고 놀이 도중에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하고 놀이 도중에 노래도 부른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내용이나 소재가 다양하고, 어떤 규칙적 음률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의 노래 가락이나 노래 내용이 수 백년전 그 나이 또래의 노래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나 인간의 놀이 행동이 진화론적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

다는 관점(Belsky & Most, 1981; Wohlwill, 1984)에서든 커다란 연구 가치를 가진다. 만약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의 노래와 유사한 음률과 내용의 노래가 오늘날에도 불리워진다면, 그 노래는 민족 정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정서란 뭐라고 분명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특정 민족에서 대대 손손 면면히 전해지는 가락과 정서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민족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한 민족의 정서적 정체감을 밝히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기 사회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유아기나 아동기의 놀이 노래를 통한 정서형성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감사의 말씀 : 본 논문의 자료수집에 수고한 서울대 아동학연구실 이 소은, 이 완정, 이 강이, 백 승진, 정 경미와 이 영미 학생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의 노래 가사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른들의 가사(歌辭)는 문학의 장르로서 국문학자의 관심사였으며, 노래 가락은 음악학자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문학과 음악이 각각의 학문 영역에서 별개로 연구되었으므로 어린이 노래에 대한 총체적 관점(wholistic perspective)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했다. 아동문학영역에서도 단지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연구들은 전래 동화(한상수, 1972)와 근래 발간된 창작동화(양영희, 1984)를 다루었거나, 전래 동요(신현덕, 1982; 장덕순, 1972)를 조사했다. 이처럼, 성인의 가사가 아닌 어린이의 놀이 노래에 대해서는 그 어느 영역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아직 총체적 관점에서 어린이의 놀이 노래 가사를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시대의 어린이들이 놀이 중에 부르는 놀이 노래를 조사하여, 놀이 노래의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이 놀이 노래 가사의 음률과 내용상의 전통적 의미를 파악해 보려 한다. 그리고 이 놀이 노래가 현재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서 연령집단별로나 성별에 따라서 달리 불리워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문학 영역과 음악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나, 그 어느 영역에서든 함께 다루지 않았던 바이므로, 다소의 제한점이 있더라도 독창적 시도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놀이 가사의 전통성

문헌에서 어린이나 성인의 놀이 과정에서 불리워지는 노래의 기원을 찾기로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원시 문명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문제의 해

결을 위해 주술(呪術)적, 종교적 제의(祭儀)를 거행하면서 천지, 자연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예찬, 기원, 호소 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이 제의적 서정시이다. 부여, 고구려, 마한, 진한 등의 풍속을 쓴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委志東夷傳)'의 기록을 보면,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하고 여러 날 동안 노래하며 춤추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현전하는 '구지가(龜旨歌)'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조동일, 1986).

고구려 초기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 고조선 시대의 '공후인(空候引)'을 비롯해서 향가 25수중 불교 노래인 균여전(均如傳)에 실린 향가 11수를 제외한 14수로 이어진다. 고려시대의 고려가요는 삼음보(三音譜)로서 3, 3, 4나 3, 3, 2조의 운율을 유지하는 서정성이 넘치는 노래들로서, 조선시대말 '아리랑'을 비롯한 삼음보 구조의 민요로 이어진다.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시대 초에 개화와 애국 계몽을 위해 불렀던 '창가(唱歌)'와 어린이에게 불리워졌던 동요는 모두 7, 5조의 형식으로 7음절을 3, 4 혹은 4, 3으로 나뉘었다. 언뜻 보면, 창가의 율격은 우리의 전통적 기본 음수율인 삼음보에서 벗어난 듯하나, 7, 5조 역시 4, 3, 5 또는 3, 4, 5로서 3음보격 내에서 변형된 것이다. 한편, 고려말에 나타나기 시작해 양반계층에서 구전되어온 시조(詩調)는 4음보격으로 서정성을 띠며, 3장으로 6구체를 이룬다. 그 밖에도 4음보격 운문 형식을 띤 가사(歌辭)는 서사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조나 가사는 모두 양반계층에서 구전되다가 기록된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양반계층이 아닌 서민층에서 발생되고 전승되어온 민간 노래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우리 민족의 가사가 지니는 기본 운율이 3음보격이며 이 운율이 근래까지도 서민 노래 가사의 기본 율격형

으로서 대부분의 노래가 이 기본 율격형 안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전래 동요는 작가나 시창자(始唱者)가 알려져 있지 않은 대중의 작품으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구전되어 전국에 전파되어 온 자생(自生)노래로서 3, 4조나 4, 4조의 기본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장덕순, 1972). 음수율을 보면, 전래 동요는 3음보와 4음보를 혼용하여 구성된 노래 형태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어린이들에게서 들려지는 놀이 노래는 어떠한 율격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밝힐 필요가 있다.

2. 놀이 가사와 시대 상황

이러한 전통의 유지는 운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다루는 주제를 통한 서정성의 표현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황조가나 공후인도 남녀간 이별을 다룬 서정시이며, 향가의 '제망매가(祭亡妹歌)'는 누이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서정시이며, 고려 가요의 대표 작품, '가시리'를 비롯한 작품들이 조선 시대의 '아리랑' 등이 주로 남녀간 사랑과 이별을 다룬 작품이라는 면에서 주제와 서정성의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사상성을 띤 작품이 있는데, 서정성에서 벗어난 작품으로 향가의 '풍요(風謠)'와 고려 속요의 '상저가(相杵歌)' 등은 노동요이면서도 유교의 교조적 가르침을 받아들여 민간에서 작품화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화기에 '학도가'처럼 사회계몽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최남선의 경복철도 노래, 세계일주가(1914)등의 창가에서도 확인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노래가 인간의 보편적 정서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에 입각해서, 유교의 충효사상, 노동의 중요성, 개화의 이

념과 계몽적 지식을 전달해 온 것이다.

3. 놀이 가사의 소재와 내용 구성

이상에서 간략히 가사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본 바에 기초해서, 우리 노래 가사의 주제별 구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놀이 가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주제를 다룬 것과 특수한 시대 상황이나 특정 사상을 다룬 것으로 나뉠 수 있다. 보편적 주제를 담은 가사는 다시 서사적 내용과 서정적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서사적 내용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 나무와 풀, 꽃과 새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며, 서정적 내용은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사람사이의 만남과 이별, 죽음 등의 주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들에게 전래된 전래 동요 해, 달, 별, 나무, 꽃, 새, 짐승, 곤충 등의 자연물과 가족원 사이의 사랑을 소재(장덕순, 1972)로 하여 순진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계급의식이나, 비판의식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 시대의 특수 상황이나 특정 상태를 담은 작품으로는 한 시대의 이념 즉, 종교 사상, 계몽 이념과 계몽 지식을 담은 것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사가 유교의 영향으로 충(忠)과 효(孝)에 대한 내용을 가사에 담은 것이라든지 일제시대에 민중 계몽을 위해 학업을 권하고 독립운동을 고취했던 내용들이 그 예이다.

이상에서 가사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통성의 유지 관점에서 음률과 소재를 살펴 보았다. 가사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시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성인 노래의 가사는 기본 율격형을 유지하면서 서사성과 서정성이 포함된 내용

이 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어린이의 전래 동요도 이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미시적으로 살펴 보면, 어린이의 발달 상태가 노래의 가사와 가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보면, 자장노래는 어린이의 발달 수준이 낮을 때에는 단순한 가사와 가락이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점차 발달 수준이 높아지면 자장노래는 추상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첨가된다(유안진, 1990). 그뿐 아니라, 어린이는 유모어를 1세경에도 이해하기 시작 (McGhee, 1977, 1979; Shultz, 1976)하는데 이 시기의 어린이도 지각이나 인지적 불일치(Pien 와 Pothbart, 1980)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시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의해서, 가사의 이러한 특성이 해방후 근 사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시에 즐겨 부르는 노래 즉, 동요나 놀이노래의 가사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해방이후 전문 음악가들이 제작해 보급한 많은 노래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일상 놀이 상황에서 불리지는 노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전통적 의미가 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사의 전통성 논의에 입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제기된다.

연구문제 1. 어린이의 놀이 노래는 통시적으로 보여진 가사의 기본 울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의 놀이 노래는 통시적으로 보여진 가사의 전통적 소재와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린이의 놀이 노래는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린 시기에 부르는 놀이 노래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6세부터 20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강동구, 강남구에 있는 유치원, 국민학교,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및 대학교 1, 2학년을 임의로 정해서 각 학년별로 남녀 30명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인원은 모두 840명(남학생은 410명이며 여학생은 430명)이며, 이들의 가정 생활 수준은 중류이다.

〈표 1〉 연구대상수 (명)

학년	남	여	학년	남	여
유치원	15	15	중 1	30	30
국 1	19	21	2	30	30
2	24	20	3	30	30
3	22	19	고 1	30	45
4	31	29	2	30	45
5	31	29	3	30	30
6	29	32	대 1	29	27
			2	30	28
합 계			840명		

2. 조사 도구의 구성

각 학년별로 10여 명씩 모두 160명을 추출했다. 훈련받은 조사자는 각 학년별로 10명의 대상과 만나서 이들에게 놀이 방법을 모두 쓰게 하고 놀

이때 부르는 놀이 노래를 첫 구절만 아는대로 모두 쓰게 했다. 시간은 50분-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이 노래를 수합해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시키고나서 놀이 노래 71개를 가지고 본 조사지를 구성했다. 본조사 설문은 71개의 노래의 첫 문장이 섞여 있으며 놀이 도중에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응답방법은 '예', '아니오'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조사 문항 아래에 보기로 주어진 노래이외에 부른 적이 있는 다른 노래가 있으면 쓰도록 빈 칸을 남겨 두었다.

3. 조사 방법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인 조사자는 1990년 6월 1일부터 15일 동안 학교 교실에서 설문을 나누어 주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그리고 설문 응답 후에 주어진 노래 이외의 다른 노래를 쓸 때에 첫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때로 옆 학생에게 묻는 것은 허용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는 수 년전 놀이 노래를 회고해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자료 분석

예비조사에서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본 연구자와 2명의 아동학 전공자가 놀이 방법별로 분류하고 다시 놀이 노래를 놀이 방법과 놀이 노래의 내용별로 내용을 분석했다. 응답 내용은 세 사람의 평가자 중에서 둘 이상이 일치되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알고 있는 노래를 묻지 않고 놀이 도중에 부르는 노래를 응답하게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민간 정서의 흐름이 면면히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근래에 작곡되어 보급된 노래를 알고 있는가를 조

사하는 것은 이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 놀이 도중에 부른 경험이 있는 노래를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놀이 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 전공자 2명에 의해서 내용 분석을 행했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자 3명 중 2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따랐다. 응답자간 평가의 일치도는 91%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응답 빈도를 차이 검증하는 것은 spss - pc 프로그램을 통해 X^2 등 비모수적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자료의 특성

조사된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놀이 방법은 모두 91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땅따먹기 등 땅에 그림을 그리거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두고 놀이하는 땅놀이 14가지, 술래잡기 등 그외 규칙 놀이가 21가지, '꽃 따먹기' 등 언어 규칙 놀이 13가지, 공기놀이처럼 특정기구를 가지고 노는 놀이 14가지, 발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 놀이 12가지, 닭싸움과 같은 전래 놀이 9가지, 구슬치기처럼 구슬이나 딱지를 따먹는 놀이 7가지, 기타 놀이 4가지 등이다.

놀이 노래는 고무줄 놀이, 언어규칙 놀이, 울동 놀이 등에서 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노래 71개 중에, 고무줄 놀이 노래가 54가지로 가장 많다. 그리고 언어규칙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가 13가지, 동작놀이 노래가 4가지였다. 고무줄 놀이는 다시 내용별로 보면, 동시에 구성된 동요가사가 26가지, 익살스런 노래가 9가지, 교

육용 보급 노래는 3가지였다. 또한 T.V에서 방영한 만화 영화의 주제가가 10가지였으며 나머지는 기타에 속한다.

2. 연구문제의 검증

이 자료를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4개를 검증한 바를 연구문제 순서대로 제시하겠다.

연구문제 1은 어린이 동요가 전통적 기본 율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운율이 있는 노래(57개)를 분석해 보았을 때, 3음조 중에서 7, 5조 즉, 3, 4, 5조나 4, 3, 5조는 17(29.9%)곡이며 7, 5조의 변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8, 5조나 6, 5조는 17(29.8%)곡에 이른다. 그리고 또 다른 가사와 시조의 운율인 4, 4 조는 8(14.0%)곡이나 4, 4 조의 변형인 4(3), 3, 4(3), 3조나 4, 3, 4, 5 조는 6(10.5%)곡, 그리고 어디의 변형이라고 분류하기에 곤란한 4, 4, 3조; 3, 4, 4조는 2(3.5%)곡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린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 전통적 율격인 3음조의 7, 5조가 주류를 이루며 다양한 변형음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덕순(1972)의 주장대로 우리의 전통적 기본 음율을 3,4조나 4,

4조로 간주했을 때에는 분류 대상의 43.9%가 해당되는데, 기본 율격의 변형까지 포함시키면 84.2%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놀이 노래가 전통적 음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놀이노래 가사의 율격 빈도 (%)

음보	율격	빈도	음보	율격	빈도
3음보			4음보		
	7.5조	17(29.9)	4.4조	8(14.0)	
	6.5조	7(12.3)	4(3).3조	6(10.5)	
	8.5조	10(17.5)	기타	2(3.5)	
	기타	7(12.3)			
계		57(100)			

연구문제 2는 놀이 노래의 주제와 내용에서 민간 정서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임동권은 1975년 한국 민요를 분류하면서 민요 중에 동요를 따로 분류했다. 그 분류에 따르면, 동물요(動物謠), 식물요(植物謠), 자모요(慈母謠), 애무(愛撫), 자장요, 정서요(情緒謠), 자연

〈표 3〉 놀이 노래의 소재

내용분류	놀이노래(동요)	언어규칙놀이 노래
동 물	개구리, 산토끼, 강아지, 코끼리, 매미	여우, 두껍이, 뽀테기
사 람	할아버지, 아가, 엄마, 동무	꼬마
식 물	개나리, 미류나무, 가랑잎, 미나리, 포플러, 싸리잎, 개나리꽃, 나팔꽃	꽃, 무궁화, 감자, 미나리
자 연 물	봄나물, 샘물, 금강산, 눈, 달, 바다	은하수
계 절, 때	봄, 가을, 겨울, 아침	
상 황	학교길, 창밖	
기 타	우산, 장난감 기차, 신, 오막살이, 도깨비	동대문, 보리밭, 쌀밥, 꿀떡

요(自然謠), 풍소요(諷笑謠), 어희요(語戲謠), 수요(數謠), 유희요(遊戲謠)와 기타 노래로 나뉜다. 본 연구는 임동권의 분류와 달리 동물, 식물, 사람, 자연물, 계절, 상황 및 기타로 나누었다. 가사는 자연물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다룬 내용과 정치, 문화 등 특수 상황에 따른 특수 내용으로 나뉜다. 부연하면, 동요나 동시가 자연물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다룬 한편, 정치적 격변과 6.25전쟁과 TV 보급 등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어린이의 노래 속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내용을 담은 노래는 동요이며, 특수 내용으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노래, TV에 방영된 만화영화와 익살스런 노래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보편적 정서를 다룬 내용으로 고무줄 놀이와 언어규칙 놀이 중에 부르는 동요를 들 수 있다. 동요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는 주로 서사적 노래인데, 서사적 노래의 내용은 동물, 식물, 사람과 자연물 등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구체적 사물들로서 노래에는 이런 사물에 대한 친근하고 정겨운 정서가 담겨있다.

둘째로 시대적 상황 또는 특수 사태로 인해 보급된 노래들이 어린이의 놀이 상황에 적용되어 수십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고무줄 놀이 노래로 불리워졌다. 이 노래는 ‘무찌르자, 공산당’, ‘진우의 시체를 넘고넘어’로 어린이들의 놀이 노래로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정서를 고취하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들은 사십년 전에 치루었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또한 이 시대적 변화는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인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TV는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히 보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가정에 설치되었다. TV를 통해서 방영된 만화 주인공에 대한 노래는 아동놀이 문화권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놀이 노래로 불리워지는 노래는 ‘ET’, ‘달타냥’, ‘독수리 5형제’, ‘코난’, ‘핑키’, ‘캔디’, ‘셀리’, ‘링’ 그리고 ‘바람돌이’와 ‘유미’이다. 만화의 주인공이 남녀가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이름의 대부분이 외국 이름인 점을 보아도 TV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 외래 문화의 영향을 일별할 수 있다.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라는 노래 귀절처럼, 이 노래들이 곤경에 굴복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처하는 모델로서 어린이들에게 자리잡은 면이 있음도 인정해야 하겠으나, 외국 이름의 외국 모델이 어린이들에게 자국민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익살스런 노래에 대한 것이다. 유모어란 현실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실이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태를 가정함으로써, 정상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McGhee, 1984),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다. 어린이들의 노래에서 보여지는 익살스런 노래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한 유모어스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탄다 탄다 밥 탄다’, ‘아프리카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 좋아 좋아 케익 사주네’, ‘……밥 쥐요 밥 안 쥐요? 찬밥도 좋아요 누룽지는 더욱 좋아요’등 이러한 가사내용이 그 예이다. 또한 ‘간질 간질 발가락이 간지러워’는 무릎에 걸린 발가락을 노래하는 대목이나 ‘자동차 바퀴’를 통해 또한 ‘지붕 위에 아줌마 집에 갔더니’라는 노래를 통해서 빈부 격차 현상도 익살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성(性)에 대한 관심

을 익살스런 노래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이 아빠 연못가에 아기를 낳아..’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가정하고 또 연못가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가상함으로써 익살을 더하고 있다. 이 사실은 성인이나 어린이의 유모어가 성에 대한 관심이나 공격 욕구를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Suls, 1983)을 입증해 준다.

한 마디로 어린이 놀이 가사에서 나타난 익살은 먹는 음식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 신체 이상에 대한 염려, 빈부 차이 현상에 대한 불편한 심사와 성(性)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놀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놀이 노래는 민요나 전래 동요(임동권, 1975; 장덕순, 1972)와 마찬가지로 자연, 곤충이나 동·식물과 가족원을 소재로 하여 서사성과 서정성이 어울어진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 이외에 전쟁과 남북 분단 등의 특수 사태로 인한 간접 경험이 반영되고 TV 만화 영화 주인공을 소재로 했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문제 3은 놀이 과정 중에 불러지는 노래에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출생 연도별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유치원 원아부터 국민학교 전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응답자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비모수적 통계검증을 실시했다.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는 1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서 최소한 두 집단간에는 놀이 노래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가정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어느 집단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 원아부터 대학생까지 놀이 노래

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노래를 과거에 불렀으며 현재부르고 있는 동일 세대임이 밝혀졌다.

끝으로 연구문제 4는 놀이 도중에 노래를 부르는 양상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었다.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놀이 노래에 있어서 재미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사성이 있는 노래, 익살스런 노래, T. V의 만화 영화 주제가에는 연령별이나 성별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부연하면 T. V를 통해 보급되거나 학교에서 교육된 노래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불렀던 정도가 비슷했다. 그런데 동작 놀이 노래에서는 유치원에서 남녀간에 차이($X^2=59.22$, $df=42$, $p<.05$)가 있으나, 그 이후 연령집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 유치원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동작 놀이 노래를 익히는데 더 적극적이며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5, 6세에 언어의 모방성이 여아가 빠르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나, 이 점은 추후 검증이 요구된다. 성차가 현저하게 나타난 노래는 고무줄 놀이 노래에서이다. 고무줄 놀이 노래만을 분석했을 때, 유치원집단에서는 성별간 큰 차이($X^2=278.58$, $df=195$, $p<.001$)가 나타났으나, 국민학교와 중학교 집단에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생 집단($X^2=1288.00$, $df=1188$, $p<.05$)과 대학생 집단($X^2=864.93$, $df=780$, $p<.05$)에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유치원 아동은 신체 운동 능력이 부족한 까닭인지 고무줄 놀이를 하지 않으며 국민학교 여아들이 고무줄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무줄 놀이를 별로 하지 않는 연령대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고무줄 놀이를 하지 않는 연령대에서

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여아든 남아든 그 연령대에서 흔히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이 남아에게는 간접적으로 놀이 노래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치원, 국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 방법에 따른 놀이 노래 가사를 수집하여 가사의 울격과 소재를 포함한 내용 분석과 연령과 성별 변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량분석을 동시에 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연도인 1990년을 기점으로 볼 때,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같은 놀이 노래를 부르므로 동일한 노래문화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동일 세대이다. 이 세대의 놀이 방법은 90여 개에 이르며, 놀이 도중에 부르는 놀이 노래는 70여 개에 달한다. 놀이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 3음보의 변형인 7, 5조와 4음보의 유지 내지는 변형된 울격을 지니고 있어서, 고려 가요 이후 조선시대말 창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전통적 울격인 3음보와 4음보가 전승,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놀이 노래는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바다, 달, 산 등 자연물과 사람에 대한 서사적 묘사와 더불어 서정성을 담고 있어서, 노래의 내용이 전통적 소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놀이 노래가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시대의 특정 사태나 사조를 반영해 준다는 측면에서 6.25 전쟁과 같은 사태 그리고 TV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만화 영화의 방영 등이 어린이의 놀이 노

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어린이의 놀이 노래가 형성되는 데에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와 그 시대의 사조나 사태가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놀이 노래를 통해 보면, 유치원 아동이나 중고등학교 청소년 또 대학교 저학년 등이 모두 한 세대로서 동일한 노래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 놀이 종류가 다르므로, 남녀간에 부르는 놀이 노래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고무줄 놀이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고무줄 놀이를 많이 하는 시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서 고무줄 놀이를 하지 않는 시기인 유치원과 대학 시절에 성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아들이 여아들의 놀이모습을 보는 경험이 관찰학습이 되어 간접적으로 놀이 노래를 익히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린이 놀이 노래의 실태와 놀이 노래의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이론적 논의가 다소 미흡하지만 20C 현재, 한국의 서울 어린이의 놀이 노래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놀이 노래의 실태가 단순한 실태에 머무르지 않고, 통시적으로 천여 년전 고려 가요를 비롯한 놀이 노래의 전통적 흐름 속에서 어린이 놀이 노래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현득(1982). 한국 동요 문학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영희(1984). 유아를 위한 창작 동화의 내용 분석 : 유치원 단원을 기준으로. 이화여자

-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동권(1975). 한국민요연구. 국어국문학 총서 12. 서울 : 삼우출판사.
- 장덕순(1972). 전래 동요의 구조 : 동요와 시의 전망. 아동 문학 사상, 7-24.
- 한상수(1972). 전래동화의 민중 의식과 형식 : 전래동화의 세계. 아동 문학 사상, 8, 35-39.
- Belsky, T. & Most, R.(1981). From exploration to play:A cross - sectional study of infant free - play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30 - 639.
- McGhee, P. E.(1977). A model of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incongruity - based humor. In A. J. Chapman & H. C. Foot(Eds.), It's funny thing, humor. Oxford, England:Pergamon Press.
- McGhee, P. E. (1979). Humor: Its origin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Freeman.
- McGhee, P. E. (1984). Play, incongruity and humor. In T. D. Yawkey & A. D. Pellegrin (Eds.), Child's play: Developmental and appli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Pien, D. & Pothbart, M. K. (1980). Incongruity, humour, play, and self - regulation of arousal in young children. In P. E. McGhee & A. J. Chapman (Eds.), Children's humour. Chichester, England: Wiley.
- Suls, J. (1983). Cognitive processes in humor appreciation. In P. E. McGhee & J. H. Goldstein (Eds.), Handbook of humor research: Basic issues.(Vol. 1). New York: Springer - Verlag.
- Wohlwill, J. F. (1984). Relationships between exploration and play. In T. D. Yawkey & A. D. Pellegrin (Eds.) Child's play: Developmental and appli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Publishers.